업은 아기 지키기

(요1:29-34)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업힌 아기 지키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업힌 아기 지키기'라고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여름에 삼척시에서 모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 공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61세 되시는 조 모 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그 경로당 옆에 있는 공터로 돌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업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34세 된 엄마가 그 차에 치면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죽게 되었고, 다행히 등에 업힌 아기는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을 때, 정말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때 아기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호주에서 일어난 아주 슬픈 얘깁니다.
11세 되는 딸이 캠프에서 돌아오는 것을 마중나간 엄마가 그 딸이 탄 버스에 치인 거예요.
운전기사가 69세 되신 분인데, 교차로에서 차를 회전시키는 중에 인도를 걷고 있던 엄마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불행하게도 생후 11개월 된 딸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차에 치인 상태에서 딸아이를 빼내서 차 바깥으로 손을 뻗어서 딸을 살려냅니다, 순간적인 거죠.
그 옆에서 본 호주 사람이 증언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차 밑에서 불쑥 손에 안겨서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 참, 엄마들의 이 순간적으로 발동하는 초인적인 모성애, 그래서 등에 업힌 아기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신문기사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진다는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이게 구체적이질 않다 보니까 이단적인 교리가 여기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적인 교리인가 하면, 만인구원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전해듣지도 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죄가 세상의 죄이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진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화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단적인 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다분히 상징적인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개인화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독생자의 십자가사건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하지만, 그 세상 죄를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이 지시는 모양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개별적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앞에 바로 물세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려 함이라' 그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서 함께 가는데, 주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로 예수님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났는데 주의 길을 계속 걸으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를 죽여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돼있어야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나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그 길은 주의 길이고 주님께서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려는 의지,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길을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내 길을 가려는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물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마음속에 결단으로 자리 잡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 길은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포기한 채로 주의 길을 가는데 함께 가려면 주님께서 나를 업으시든지 안으시든 둘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 마음 자체를 물세례를 통해 죽였으니까, 물세례의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시려면 나를 업고 가시든지 안고 가시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든지 업든지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한 발짝을 떼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등에 업은 나를 죽이기 위한 칼과 창이 빗발치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레이더스'라는 영화, '법궤를 찾아서'라는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진 유물들이 가득한 유적지를 도굴할 것을 방지해서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면, 벽

에서 갑자기 창이 쑥 나오고, 무얼 누르면 땅 밑이 갈라지면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 도굴꾼들의 죽은 시체와 해골이 가득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한 발을 떼자마자 등에 업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과 창이 빗발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500년 전 모세의 때로 좀 돌아가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 계약, 결혼식과 같은 것이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예비하며…' 성결케 하라는 얘깁니다.
다음에 '제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제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민이지만 다 죄인으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넘어오게 될 경우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자리까지 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예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자마자 발을 떼놓는 곳은 하나님의 의로운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경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의 뜻 밖으로는 나가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상황 바깥으로 나갈 마음이 없으시고, 나가실 수도 없는 분이고,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업고 발걸음을 옮겨놓

은 곳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지경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시내산에서 그 지경을 범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도 대지 말라,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쏴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길을 가시는데, 그분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 속에 발을 들여놓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업고 계시는 나는 도저히 그 지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업힌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돌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해놓은 창들이 날아오듯이 사방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창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이때, 앞에서 창이 날아오면 주님이 나를 등으로 업고 앞으로 창을 맞으시고, 뒤에서 채찍이 가해지면 주님이 나를 가슴에 안고 등 뒤로 채찍을 맞으시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세례요한의 증언 속에 담긴 말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머물 수 있는 그 자리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우리는 더러움으로 찌들어버린 죄의 장아찌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게 됩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까?
왕이 특별히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손에 든 왕의 홀을 내밀거나 던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호위군들이 쏜살같이 나타나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서 끌고나가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되시는 자리로 우리를 업고 가실 때에, 등 뒤에 업힌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마치 하나님 주위에 숨어있던 호위군사들처럼 칼과 창을 들이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칼과 창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당신이 칼과 창을 받으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사건이고 이것을 향하여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어린양이 도살을 당하듯이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는 얘기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 업혀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생애를 살려고 뻣뻣하게 힘을 주면 주님께서 업으실 수가 없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들이 할머니가 업으려고 할 때 마구 발버둥을 치고 포대기 밖으로 허리가 다 나오도록 뒤로 자빠지려고 할 때 도저히 할머니의 힘으로 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고 살겠다고 버둥대는 것입니다, 업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더러움입니다.
하나님 말고, 돈으로 만족하려 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기뻐하려 하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지기 원하고 행복한 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숙명적으로 팔자와 사주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려 하면 운명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주요 우리의 팔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해지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도록 팔자가 정해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 팔자와 내 사주가 그렇게 바뀌고 내 운명이 그렇게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기쁠 수도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갖고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등 뒤에 업은 내가 더럽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한 형벌의 칼과 창이 날아드는 것을 주님께서 다 맞으시고 죽으셨

을 때, 등에 업힌 상태에서 같이 죽음을 따라들어 갑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같이 따라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자들, 이제 죄 값이 치러지고, 왜냐하면 나를 향해 죄 값만큼 날아온 모든 칼과 채찍을 주님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죽음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태어난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대해서 몸처럼 5감관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운명 지어진 자들, 물세례의 의미를 스스로 결단하면서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이것을 내용적으로 말하면 '죄의 장아찌인 너라는 사람을 업고 가는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업고 당신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길을 가십니다.
도저히 나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 자리로 나를 업고 가시는 동안에, 나를 향해 다가오는 더러운 죄인을 향한 형벌의 창과 칼을 주님께서 다 맞아버리신 사건, 이 십자가사건을 향하여 요한복음이 이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등에 업히십시다!
이게 복음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을 위한 나로부터 발생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뻗대는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아기처럼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복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됨으로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아버지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자들이 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